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4년도 표어 ◎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시51:10)

◎ 행동지침 ◎

- 1. 바른생활
- 2. 바른교회
- 3. 바른국가

† 발행인: 이종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영혼의 양식 - 소신지서 강해

## 금식보다 순종을

(스가랴 7:1 - 7)

미국의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지 갤럽 박사에 의하면 미국인은 81%가 스스로 종교인임을 자처 한다고 합니다. 95%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여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삶에 있어서 종교의 우선권은 거의 최하위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십계명을 믿으나 십계명에 대해서는 아는바 없고 종교의 기본교리에 대해서도 무지하며 무엇보다 영적 훈련이 전무한 상태라고 하며, 갤럽 박사는 '미국인들은 매우 위선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7, 8장에서 종교 신앙에 대해서 위선이나 형식주의 이전에 무관심한 태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이유는 철저한 회개와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하는 사람의 자세는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자기의 공로로 생각합니다.**

### 1. 헛된 금식

"그 때에 벨엘 사람이 사레셀과 레겔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오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2-3절).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본 후에 2년이 지났습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한지 2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렇게 성전 재건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벨엘에서 대표단이 도착을 했는데 그들은 지난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이 되었는데 슬퍼하며 금식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질문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벨엘에서 온 사람들에게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바벨론에 돌아온 벨엘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슌 2:28), 요한 갈빈은 바벨론에 잡혀있던 유대인을 통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을 말할 것입니다. 이들이 바벨론에서 대표단을 보내어 금식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을 때 이들에게는 완전히 은혜가 끊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진 것이 5월이었었습니다. 이 시간을 잊지 못하고 그들은 해마다 5월이 되면 울면서 금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해방이 되었고 하나님은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그 일에는 순종하지 않고 앉아서 금식을 논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가중한 일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보다 사람이 만든 규례에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1년에 하루, 속죄하는 날만 금식을 했을 뿐 그 밖에 모든 금식일은 사람이 만든 규례였습니다. 성전 파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멸망의 때를 기억하며 매년 여러 차례 금식일을 정해놓고 울며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을 때는 고통의 때를 기억하며 금식하는 것이 유익이 되었는지 모르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재건하는 마당에 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에 관해서 논쟁을 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전통적인 금식일을 지키는지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금식은 매우 헛되고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 2. 잘못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은 저들의 형식적이고도 의식적인 종교 신앙을 책망하십니다(4-7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경건 생활, 봉사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바른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참 종교를 추구하고 있는 이들을 격려하십니다(7:11 - 8:8). 그리고 하나님은 현재의 의무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8:9-13). 또한 하나님은 금식이 아닌 축제를 해야 될 때가 되었으니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을 요청하시며(8:14-19) 이방인을 구원으로 이끌어내어 함께 기뻐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8:20-23).

벨엘에서 온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 자기를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은 불순종하면서 엉뚱하게 인간이 만든 규례에만 매달렸습니다.

"... 너희가 칠십 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나 하시니라"(5-7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금식관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부적이고 형식적인 규례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이유는 철저한 회개와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하는 사람의 자세는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자기의 공로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사 58:3-5).

이것은 단순한 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락을 하며 서로 다투는 일을 금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8:6-7은 신행일치의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며 이런 금식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사 58:8-9).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은 했지만 하나님을 찾거나 섬기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과는 무관한, 오히려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5절).

금식을 할 때는 반드시 억압 받는 자, 버려진 자, 소외된 자들을 사랑의 행위로 연계를 시켜야만 바른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금식을 할 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행위에 관해서는 이사야나 아모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심지어는 율법을 강조한 모세까지도 강력하게 외치는 바입니다.

행위가 없는 신앙, 공의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재판을 공평하게 하며 공의가 따르는 삶을 살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9절). 또한 소외되고, 억울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사람을 돌보고, 남을 해하지 않는 사람이 금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신앙인에게 위선은 저주의 대상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신행일치의 삶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8월 한 달간 다락방 방학한다

## - 개인 경건의 기회로 -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람들은 여가 선용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적이 있었던 것처럼 일상적 생활을 잠시 떠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충전의 기회를 갖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더욱이 불볕더위 속에서 일의 능률도 떨어지는 시기에 시원한 곳을 찾아 영육의 휴식을 취하는 일은 영적 진보를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조용한 산이나 계곡을 찾아 하루 또는 이틀정도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가족과 함께 기도와 말씀 읽는 시간을 갖는 것은 가정의 평화와 자녀 교육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휴가가 사치와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 교회는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휴가문화를 조성케 하고 동시에 좁은 공간에 더운 날에 모이기도 힘든 8월 한 달간 다락방 모임을 휴강케 함으로 개인 경건의 기회를 삼게 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다락방자들은 회원들의 성수주일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해야 하며 전화심방을 통해 다락방 가족들을 돌보며 보고해야 한다.

#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 고등부 - 26일(월)-28일(수), 중등부 - 29일(목)-31일(토)

우리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의 여름 수련회가 금주 중에 시작된다. 고등부는 '주 예수를 믿으라'를 주제로 26일(월)-28일(수)까지 3일간, 중등부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를 주제로 29일(목)-31일(토)까지 3일간 평택의 진위

고등학교에서 각각 열리게 된다.

학업에 지친 중고등부 학생들이 무더운 여름 잠시 학업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힘써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한다.

# 군복무자를 위한 제2회 월례 중보기도회 세계기독교인대회 민박접수

### 중보 기도회 - 8월 1일(주) 오후 3:30 102호(미스비홀)에서 열려

지난 달 군복무중인 청년들을 위한 월례 중보기도회를 시작한 비전2020운동본부(위원장 이갑진 장로)는 오는 8월 1일(주) 오후 3시30분 102호(미스비홀)에서 제2회 월례 중보기도회를 갖는다. 자녀가 군복무중이거나, 군복무 예정인 모든 성도들과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누구나 함께 기도할 수 있다. 유난히 무더운 이번 여름을 군에 있는 청년들이 말씀과 기도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한다.

또한 오는 9월에 있을 세계기독교인대회 참석자들을 위한 민박가정 10가정을 계속 접수하고 있다. 민박일정은 군인대회가 끝난 후 9월 18일(토)부터 20일(월)까지 3일간이며 민박을 하게 되는 참가자들은 19일(주) 우리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 민박 제공에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들은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민민에게전도-제4기단기산교팀개안기도제목

# 기도외에는...

### 홍성주 장로



·복음의 빛진 자로서 방글라데시의 불쌍한 영혼을 사랑하고 모든 대원이 맡은 책임 잘 감당하게 건강지켜 주옵소서.

### 전용순 권사



·건강과 큰 믿음 주셔서 이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 이지혁 집사



·방글라데시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 이한나(대학부)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맡은 사역 잘 감당하도록...

### 곽정임(대학부)



·하나님이 주신 온 몸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그 땅을 위하여 일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천국일꾼양성-스데반회수련회를 마치고

# 기도로 준비시킨 수련회

### 오광환 집사(스데반회 간사)

사도들로부터 직접 안수 받은 초대교회 첫 번 집사. 진리 안에서 의연했던 성도, 죽음까지도 끌어안는 용서의 실천, 핍박 앞에 미소 짓는 소망의 사람 스테반. 우리 스테반회는 십자가의 비밀과 부활의 소망을 품고 중인의 삶을 살아간 스테반 집사를 본받아 하나님과 교회앞에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다짐한 서울교회 안수 집사들의 모임이다.

매일 매일이 영적 전쟁의 터인 이때에 오늘날의 스테반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다시 한 번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모였다. 7월 16일부터 17일 양일간 오대산에서 개최된 이번 수련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가 기도로 준비된 기도의 수련회였다. 시간에 맞춰 각자의 일터에서 돌아와 교회로 모인 오후 7시경, 새로운 도전과 결의 대한 소망을 품은 스테반들을 실은 3대의 버스가 강원도 평창을 지나 오대산으로 향할 때쯤 빗발이 차창을 때리기 시작하면서 서예정보다 다소 늦게 도착하게 되었다. 첫 시간 강의하실

이중운 목사님은 시간 전에 도착하시어 뒤늦게 도착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수로 맞아 주셨다. 그리고 곧바로 '영적 전쟁(Spiritual Warfare)'이라는 제목으로 첫 훈련이 시작되었다.

새벽 1시까지 계속된 강의에 이어 참석자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회를 가졌다. 회개와 감사, 헌신과 결단, 스테반회 집사 피택집사와 가족을 위해, 병중에 있는 서울교회 환우들을 위해, 목회자들을 위해,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과 각 기관, 프로그램을 위해, 한국교회의 부흥과 세계선교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상과 같은 기도제목들을 하나씩 놓고 함께 기도한 후에 새벽 2시가 넘어 첫 날 프로그램을 마쳤다.

다음날, 맑은 산 공기와 함께 시작한 새벽기도회와 산책이후 믿음의 선배이자 당회서기이신 김광신 장로님께서 'Stewardship-7 UP'이라는 제목으로 직분자의 자책에 대한 특강을 해주셨다. 무엇보다 강의 부탁을 받고 기도원에 5차례나 가서서 기도로 함께 준비하셨다는 장로님의

실천은 새로운 도전과 결의를 스테반들에게 부여주었다.

1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우리의 삶이 스테반과 같이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 그러나 산을 내려가는 그 길은 분명 어제 걸었던 그 길과 달랐다. 세상을 향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새겨지는 그 소망들,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 그 안에서 형제와 교회를 세워주는 일. 우리는 이 땅의 스테반들이다.

### 미국 하원에서 북한인권법 만장일치 통과

북한의 인권문제와 탈북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인권법(North Korea Human Rights Act of 2004)'이 지난 21일(수, 현지시간)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짐 리치 하원 국제관계위 아태 소위원장이 지난 3월 23일 제출한 이 법안은 반대자 없이 13분여 만에 구두 표결로 가결되었다. 이 법안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 의회의 첫 입법적 조치로 이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천국시민양성-2004 여름성경학교

# 겨자 씨와 누룩 같이

계속 될 것만 같던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한층 기승을 떨던 22일.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게 하며 교제를 통해 믿음을 성장케 하는 교육1국의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다. 교육1국은 이제 각 백일을 지난 어린 영아부터 4세 미만의 아이들이 있는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그리고 초등부까지 네개의 교회 학교가 소속되어있는 우리 교회의 가장 어린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새싹들이다. 그러기에 성경학교에 대한 선생님과 장로님 담당

목사님의 관심과 준비는 무척이나 세심 하였다. 아직 젖도 떼지 못한 아가들은 엄마의 품에 안겨, 겨우 걸음 걸이를 하는 아이는 엄마의 손을 잡고, 그에 비해 초등부 친구들은 한층 어른스럽게 개회예배에 참여 하였다.

하영수 장로님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에서 이종운 목

사님은 '겨자씨와 누룩같이' 라는 말씀을 통하여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 밀가루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듯이 교육1국의 어린 새싹들도 믿음으로 자라 사람들 속에 들어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셨다. 그리하여 이 나라가 교회를 통해 미신을 버리고 교육, 문화, 스포츠, 과학기술 등 모든 면에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내적변화를 통해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셨다.

이날 이들을 맞이하는 선생님들은 9시부터 명찰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바쁘게 움직였고, 다른 많은 선생님도 일찍이 나와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일을 준비 하였다.

2004년 교육 1국의 여름 성경학교의 '하나님 나라와 디아스포라' 라는 주제처럼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림을 받는 많은 흠어진 주의 백성들이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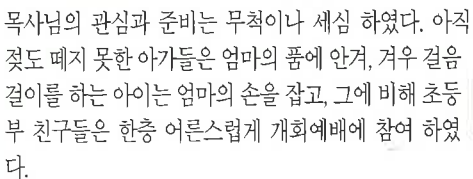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더욱 힘쓰는 귀한 계기가 되고, 우리의 아이들이 그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다.

교육1국의 여름 성경학교의 시작에 특히 유년부는 분홍색 티셔츠를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통일되게 입어 주위를 한층 밝고 기쁜 분위기로 만들어 주

기도 하였다. 개회예배를 끝내고 선생님의 지도아래 씩씩하게 각 부서로 재잘대며 떠나는 이들을 바라보며 언젠가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다. 콩나물에 물을 주면 그 즉시 물이 다 빠져 나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은 쑥쑥 잘 자라난다는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겨자씨와 같은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어 그 가지에 새들이 와 깃들 듯이 이 어린 생명들도 자꾸만 어지러워 가는 이 세상에 진정 소망의 새싹들이 되기를 바라며 성도님들의 변함없는 기도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한다.

글: 유명희, 사진: 오주명(편집부)



천국시민양성-대·청부수련회

#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대학부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왈츠풍의 성가에 맞춰 젊은이들은 둥글게 원을 그리며 춤으로 찬양했다. 뜨거운 눈물로 기도회를 마치고 난 후라 그런지 활짝 핀 이들의 얼굴은 기쁨과 열기로 가득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제자도' 를 주제로 한 대학부 수련회의 마지막 밤은 이렇게 한없는 감동으로 찾아왔다.

방학의 한 중턱인 지난 14~17일 3박4일간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대학부 수련회에는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해 최근 크게 부흥하고 있는 대학부의 진가를 발휘했다. 각자의 사정에 따른 것이지만 상당수의 학생들이 처음엔 수련회 오기를 망설였다고 한다. 그러나 마지막 날 '은혜나누기' 시간에 이들은 한결같이 '중간에 집에 오려고 했던 마음이 어느새 사라졌다'고 간증했다. 집회 및 그룹성경공부 시간을 통해 하루에 세 번씩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말씀이 정신적으로 흔들리던 이들의 삶의 지표를 잡아줬던 게 무엇보다도 영향이 컸다. 또 그간 얼굴밖에 모르던 지체들을 묶어준 멘토링 프로그램은 대학부가 낯설기만 했던 사람들에게 서로 정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

특강 중에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 라는 가르침이 있었다. 이후 한 자매는 "위로해주시는 하나님을 두렵기만 한 분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며 눈물을 쏟았다.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지'며 부르시는 사랑을 배울 수 있었던 이번 수련회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방황하는 젊음을 제자의 길로 인도하기엔 충분했다. 시원하게 내리는 빗속에서 물놀이하던 수련회 셋째 날처럼 어지러운 생각을 말끔히 비우고 순결한 마음으로 믿음의 정상에 향해 걸어가 는 제자가 되길 바란다. 젊은이여, 일어나 걸으라.

고은실(편집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청년>

강화 신덕 수양관에서 열렸던 이번 청년부 수련회는 이태훈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예배로 시작 되었다. 퇴근 후 바로 수련회에 참석한 청년들이 많아 피곤하였겠으나 새벽 2시까지 단 한 명의 조는 사람도 없이 너무나 은혜로운 가운데 시작 예배를 드렸다.

이튿날, 6시 기상, 피로가 풀리기도 전에 아침 예배를 드리고 모두 함께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며 하루를 시작했다. 언제나처럼 조별로 모여 밥절을 외우며 아침을 먹고, 30분 남짓 주어진 휴식시간 후 본격적인 수련회 일정에 들어갔다.

이종운 목사님의 '크리스찬의 결혼관'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시작으로, '청교도 이야기', 찬양 그리고 자정이 넘어서야 끝났던 이태훈 목사님의 귀한 말씀. 이번 수련회는 그야말로 말씀 잔치였다.

수련회 내내 거의 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정된 공놀이, 그리고 여름수련회의 추억을 담을 수 있는 캠프파이어와 바닷가에서의 물놀이도 할 수 없었지만 오히려 그 비로 인하여 청년들은 주님의 귀한 말씀 속에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청년'이라는 주제로 이태훈 목사님께 6번의 귀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청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은혜와 감격을 맛보았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 아파하면서도 정작 그분의 부활하심에 감격하는 것을 잊고 있던 우리에게 부활신앙에 대한 믿음, 그 감격의 확신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진정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순교자의 삶이란 걸 깨닫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맞서 느끼는 외로움과 고난을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으며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음을 삶의 순간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주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삶을 살 것을 깨닫고 다짐한 수련회, 이번 수련회는 어느 좋은 휴양지에서의 휴가와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귀한 시간이었다.

나소정(편집부)





# 2004년 여름 수련회에 초대합니다.

## 여호와와의 산에 오르자



**이태원 집사(중등부 부장)**

기다리던 여름방학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공부님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공부 선생님이 집에 오십니다. 그것도 모자라 학원으로 공부님을

만나러 가야합니다.

“이게 뭐니까. 공부님 나빠요.”

자. 학교와 집과 학원으로부터 떠나 여호와와의 산에 오릅니다. 그 곳에는 시원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좋은 친구, 선생님과 같이 멀리 바라볼 수 있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몸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산에 오르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금식하며 이어 기도하고 있고 중등부 친구들과 학부모님들께서 한머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7월29일 - 31일까지 3일간이며 7월30일 오후 3시 교회에서 학부모님과 함께 출발. 학부모님, 학생, 교사 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여호와와의 산에 올라 복된 시간을

을 갖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창 22:14)

## 결코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운 시간



**황유석(고등부 교사)**

장마가 끝나고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번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낼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알

차고 신나는 방학을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후회가 없을까? 결국에는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는 가치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수능시험과 대학진학입니까? 이성친구입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 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진 것이 하

나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 모두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번 고등부 여름수련회의 주제는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성화 때문에, 습관적인 신앙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인(敎人)과 신자(信者)는 다릅니다. 이번 고등부 여름수련회는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에 젖어있는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좋은 성적, 좋은 대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째 날 저녁집회와 둘째 날 바비큐파티·저녁집회에 부모님들을 초청합니다. 꼭 오셔서 온 가족이 은혜 받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04 고등부 여름수련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7월 26일-28일, 진위고등학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코 잊혀지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 만민에게 전도 - 분천중앙교회에서 온 편지

#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께 영광!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인사의 말씀 올립니다.

분천 중앙교회는 귀 교회 엘리야 남선교회로부터 이미 큰사랑과 지원을 받아온 농촌 교회로 금년에는 서울교회 여름 전도 봉사대를 통하여 더욱 큰사랑과 격려를 받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1964년 3월 24일 장년 20명, 아동 50명으로 고 권남섭 장로님 가정에서 창립 예배를 드린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사이에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교회도 부흥하여 100여 명이 넘는 교회였으나 산업화로 인한 이농 현상으로 지금은 장년 30여 명, 아동 14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을 초등학교 분교생이 24명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소망 있는 교회입니다.

장년 성도 평균 연령이 70대입니다. 마을 주민 역시 대다수가 70대로 자녀들은 도시로 나갔고 연로하신 부모님들만 계십니다. 이는 한국 농촌의 보편적 현상으로 마을이나 교회나 일할 수 있는 젊은 세대가 없는 점, 예외 없이

러 가지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점,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나 의료 면에서 돌봄을 잘 받지 못하시는 점이 안타까운 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금년에는 서울교회 농촌 전도 봉사대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과 함께 위로를 드릴 수 있어 우리 교회로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가 육신의 떡과 함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온 주민들의 마음속에 전파되어 위로부터 내리는 참된 평안을 맛보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서울 교회 당회와 성도들과 엘리야 남선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살롬-

분천중앙교회 목사 강성호 드림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9일(목) 서울여대 이사회에 참석한다.
- 필그림 산악회 덕유산 수련회: 8월5일(목) 오전6:30 교회출발(준비물:등산복, 성경찬송) 문의 이종창 집사(011-717-9233)
- 김인재 선생(임리누엘 찬양대 지휘자)은 제주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로 초빙되었다. 우리교회는 오늘부로 사임한다.
- 김상철 장로(3교구)는 '시대를 보는 눈'이라는 칼럼집을 출판하였다.
- 김세재 장로(4교구) 금강 책화그룹 총괄 사장으로 승진
- 임홍수 집사(3교구) 현대자동차 터키 법인 사장으로 발령
- 이사: 송상훈 김수연 성도(6교구) 교양시 일산구 대화동 대화마을 901-1704 T.031-915-7972
- 박종만, 이미경집사(3-18) 도곡2동 우성리빙텔 1903호 T.3463-0507
- 김현수, 이은희집사(3-15) 도곡1동 럭키 아파트 1021015 T.573-5159
- 김인화 집사(11-13) 대치2동 은마@ 30-1110 T.553-0433
- 독남: 이홍철 성도 김명애 집사 가정(13-11)
- 구역자휴가: 이용식 목사(26-31일) 대명: 한상은 목사 이태훈 목사(26-31일) 대명: 손재영 선생
- 주간 식당 봉사: 당회원(7월 25일) 스테반회(8월1일)
- 금요철야담방부서: 디아스포라, 신앙강좌반(30일)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TV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HLKX 106.9 MHz(국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호산나넷 - ( <a href="http://hosanna.tv">http://hosanna.tv</a> ) 기독교 TV - ( <a href="http://www.cts.tv">http://www.cts.tv</a> )

## 서울 주간기도

###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여름 수련회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3.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 농어촌 선교팀을 위하여
4. 국론 통일과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